

서울 쌍문동 26 일대... 방학천 품은 수변 주거단지 '탈바꿈'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35층, 1030세대 안팎 조성
선형녹지 조성·통합 산책로 연결
용도 상향에 용적률 300% 적용
연내 구역지정 목표로 절차 추진

방학천변에 위치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수변 중심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030세대 내외, 최고 35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쌍문동 26 일대는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하고 방학천과 맞닿아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향후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신설역도 도보권 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과 교통 여건을 함께 갖춘 주거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쌍문동 26 일대를 수변 중심 생활



권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초록 수변 생활권 조성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한 개발 여건 마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 중심 생활환경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방학천을 따라 폭 15m 규모의 선형 녹지를 계획해 인근 방학천동아1단지 재건축에 따른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자연형 하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도봉산 둘레길까지 이어지는 통합 산책로로 조성해 방학천 일대를 주민 일상을 담아내는 새로운 생활 중심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수변공간 조성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주민이 토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제

공하면 공공이 설계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 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여건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인근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우이신설선 연장 등 변화에 대응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300%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준용적률 완화 20%와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사업 실현 가능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지 내 도로 체계도 보행 중심으로 재편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남북도로인 방학로7길을 공공보행도로로 전환해 수변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35층 내외의 유연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방학천 수변공간과 단지 경계부에는 수변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단지 안팎이 소통하는 열린 단

지를 만들고, 방학천과 녹지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 편의성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쌍문동 26 일대에 대해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쌍문동 2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77개소 가운데 170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쌍문동 26 일대가 방학천과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활력있는 수변감성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해 도시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남녀공학 전환 확대... 학교 선택권 넓힌다

서울시교육청

2027~2028학년도 계획 시행

2개년 통합 신청해 준비기간 확보

화장실 등 필수시설 개선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 방식을 개편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9교 가운데

남녀공학은 478교(67.4%), 단성 학교는 231교(32.6%)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 신청 방식을 개편한 '2개년 통합 신청 체계' 도입이다. 학교는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가운데 원하는 전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에 향후 2년치 대상교를 미리 선정해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8학년도 전환교는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시설 공사과 교직원 연수 등 내실 있는 전환이 가능해진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행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남녀 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필수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를 학교별 여건과 사업 규모에 맞춰 지원한다. 또 성별 교육차 해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1교당 매년 8000만원씩 3년간 총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전환 초기의 안정적인 생활지도와 상담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1교당 매년 2000만원씩 3년간 총 6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신청은 2026년 5월 말까지 받는다.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배치 계획과 전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올해 7월 중 전환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행안위 통과

신규특례 19건 담아 제도 실효성 강화

고양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른바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장기간 국회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후 지난 3월 31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병합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를 통과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체회의까지 넘어섬에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는 2022년 출범 이후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권한과 재정 구조에 묶여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무 특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특례시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사교육 의존 낮추고 공공 대입상담 강화

교육부·대교협, 상담교사단 500명 위촉
전화·온라인 통해 1대1 맞춤상담 지원

사교육 의존을 낮추기 위해 공공 대입상담이 5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챗봇 도입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신설, 아동양육시설 대상 방문 상담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상담교사단 운영을 통해 늘어나는 진학상담 분야 사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공평한 대학 입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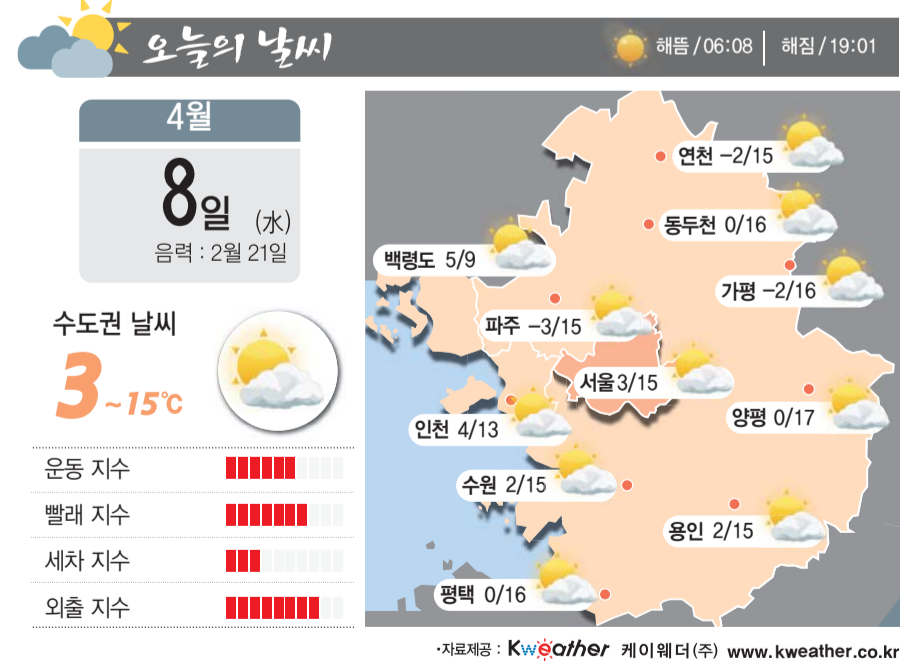
전화상담은 1600-1615를 통해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대입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대입상담교사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올해 대입상담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우선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상담이 오는 7월부터 '어디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새롭게 제공된다. 상담 신청 학생은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와 협업해 마련한 상담 기준과 평가 체계에 맞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말에는 '어디가'에 AI 기반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 서비스인 챗봇도 신설된다.

/이현진 기자



▲인도, 7년 만에 이란산 원유·가스 수입 재개... '에너지 실리외교'
▲IMF 총재 "전쟁으로 석유 공급 13%↓... 물가 상승·성장 둔화 불가피"

▲오픈AI, 주 4일 근무·로봇세 제안... "기술 번영 모두가 누려야"
▲달 뒷면 품은 아르테미스 2호, 무사 귀환길 올라

▲엔트로픽, 사모펀드들과 AI 합작사 설립 추진... 기업 고객 확대 전략
▲프리다 칼로 작품들 스페인 반출에 멕시코 반발